
제 47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결과

2016. 3.



기 획 조 정 관
국제협력담당관실

목 차

I. 출장 개요	
II. 본회의 일정	
III. 주요 활동 내용	
1.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	
2. 공식통계 고위급포럼(UN World Data Forum)	
(1) 2030 어젠다 이행의 데이터 수요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대화	
(2) 데이터 전문가와 생산자의 파트너십, 혁신적 접근 및 솔루션	
3. 공식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회의(HLG-MOS)	
4. 양자 협력회의	
IV. 기타 참고자료	
1.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주요 사진	
2. 면담 인사 명함	

[별첨 1]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 결과(원문)

[별첨 2]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국가별 참가자 명단

I 출장 개요

1. **회의명** :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The 47th Session of the UN Statistical Commission)

2. **기간 및 장소** : 2016. 3. 6.(화) - 3. 12.(금), 뉴욕 유엔본부

3. 대표단

- 단 장: 통계청장
- 단 원: (통계청) 조창상 기획조정관, 성기도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경숙 서기관 및 최종희 사무관
(한국은행) 전승철 경제통계국장

4. 주요 일정

- 공식통계 고위급포럼(UN World Data Forum의 역할) 참가 (3. 7.)
- 공식통계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HLG-MOS) 회의 참가 (3. 7.)
-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 참가(3. 8.~3. 10.)
- 유로스탯(3.7.), 라오스(3.8.), 아일랜드(3.9.) 아부다비(3.10.) 등 통계협력회의

5. 주요 활동

-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부의장직 선출 및 주요 의제*별 아국의 입장 발언**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지표, 빅데이터, 국민계정, 국제통계분류, 산업통계 등
- **EU 통계처, 아일랜드** 등 주요 통계기관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직원 파견 등 공동 협력사업 방안 논의
- 중동지역 통계협력 거점으로서 **아부다비 통계청과 MoU 체결, 유엔인구 기금 업무협약체결** 및 라오스, 볼리비아 등 통계부문 ODA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공식통계 고위급포럼*, 공식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HLG-MOS) 회의 등에 참가하여 선진 통계 동향 파악
* 주제: UN World Data Forum

II 본회의 일정

일시	시간	의 제 명	문서번호	
3.8 (화)	10:30- 11:00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 개회식(30분)	1 / L.1	
		1. 의장단 선출		
		2. 의제 및 기타 운영방식 채택		
	3. 의사결정 의제 (Items for discussion and decision)			
	11:00- 13:00	3(a)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어젠다" 데이터 및 지표	2 & 3	
	15:00- 18:00	3(b) 공식통계를 위한 변혁적 어젠다	4 & 5	
3(c) 공식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6		
3(d) 국민계정		7		
3.9 (수)	10:00- 13:00	3(e) 환경-경제 계정	8	
		3(f) 국제비교프로그램	9 & 10	
		3(g) 국제통계분류	11	
	15:00- 18:00	3(h) 산업통계	12	
		3(i) 정보통신기술통계	13	
		3(j) 난민통계	14	
3.10 (목)	10:00- 13:00	3(k) 기후변화통계	15	
		3(l) 거버넌스통계	16	
		3(m) 서아시아 지역통계 개발 보고	17	
	4. 정보제공 의제 (Items for information)			
	15:00- 18:00	4(a) 세계통계의 날	18	
		4(b) 인구통계	19	
		4(c) 성인지통계	20	
		4(d) 가구조사	21	
		4(e) 장애인통계	22	
		4(f) 국제무역 및 경제의 세계화 통계	24	
		4(g) 통계프로그램 조정	25	
		4(h) 통계역량구축	26	
		4(i) 환경통계	27	
		4(j) 문화통계	28	
		4(k) 물가통계	29	
4(l) 자연자원 기준 경제통계		30		
4(m) 통계 및 지리정보 통합	31			
4(n) 총회 및 ECOSOC 결정에 대한 follow up	32			
3.11 (금)	10:00- 13:00	5.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등 보고 (유엔통계처) (30분)	-	
		6. 제48차 유엔통계위원회 의제(안) 및 일정 (30분)	L2	
		7.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보고(채택사항 등) (2시간)	-	

III 주요 활동 내용

1.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

※ 의 장: 브라질(Wasmalia Socorro Barata Bivar)
부의장: 한국(유경준) 영국(John Pullinger) 케냐(Zachary Mwangi Chege)
서 기: 라트비아(Aija Zigure)

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어젠다를 위한 데이터 및 지표

- 통계위원회는 글로벌 지표 개발과 관련한 IAEG-SDGs의 보고서를 지지하면서, 향후 기술적 개선(refinement)을 전제로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의 Goals과 Targets을 위해 제안된 230개 글로벌 지표와 IAEG-SDGs의 개정된 ToR 내용에 합의함
- 우리측 대표단장(유경준 통계청장)은 소득, 장애, 이민지위 등 지표의 세분화(disaggregation)를 위한 변수의 명확한 제시와, 고위급정치포럼(HLPF) 검토 프로세스의 조속한 마련 및 통계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국가통계청의 참여 필요성 명시를 제안하여 회원국의 지지를 얻음
 - 또한 기존 52개 회색(grey) 지표가 녹색(green)으로 전환되어 최종 230개로 확정되는 과정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 Target 2.b 지표인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를 포함한 일부 지표의 경우,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아울러 향후 지표와 관련한 오픈 컨설팅을 할 경우, 분산형 통계 제도하에서는 국가 통계청 외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의견수렴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줄 것을 적극 피력함
- 통계위원회는 개방, 포괄적이고 투명한 IAEG-SDGs의 프로세스를 치하하면서 집중력과 결정력을 겸비한 그간의 업무수준과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과 다음 사항을 IAEG-SDGs에 요청함
 - 고품질의 지표 프레임워크 개발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기술적 프로세스이므로, 승인 메커니즘을 포함한 지표 프레임워크의 정기적 리뷰계획을 제48차 통계위원회에 제출

- 금번 회기 중 위원국에 의해 제기된 일부 지표의 개선을 위한 특정 제안에 대한 검토
- 국가 간 비교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 및 기준을 포함하여, 특히 방법론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Tier III 지표의 방법론 개발 계획 등 글로벌 지표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제48차 통계위원회에 보고
- 제안된 지표는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의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와 리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지역 및 국가별 모니터링 지표는 각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고, 리뷰도 국가별로 상이한 역량, 발전 수준,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함
- 또한 지표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한 국가통계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ECOSOC resolution 2006/6에도 부합함
- 위원회는 특히 글로벌 지표의 ‘tier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3월말 멕시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IAEG-SDGs 미팅을 포함한 향후 IAEG-SDGs의 업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함
- 글로벌 지표 작성은 비교가능하고 표준화된 국가 공식통계의 확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며, 각 국가는 사용한 자료원과 방법론을 국제통계 시스템에 제공
- 데이터 세분화의 향상은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ing no one behind)’는 2030 어젠다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지표 프레임워크 이행의 초석으로, 동 분야의 국가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필요시 통계 기준 및 툴(tool) 개발, 워킹 그룹 창설 등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강조함
- 위원회는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를 위한 파트너십, 조정, 역량구축 고위그룹 (이하 HLG)의 개정된 ToR 원칙에 합의하고, HLG의 명확한 역할 제시 등 금번 회의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버전의 승인을 통계위원회 의장단에 요청함
- 통계위원회는 HLG의 UN World Data Forum에 대한 concept note(안)을 환영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아울러 통계시스템의 현대화 로드맵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데이터 글로벌 액션 플랜(안)”에 대한 협의도 ‘16. 3. 22까지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신속한 통계역량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HLG와 IAEG-SDGs의 joint-subgroup 창설 제안을 채택하고, HLG의 업무계획을 승인하면서, 제48차 통계위원회 시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함

가-1.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어젠다 지표」 관련 국가별 발언

- (필리핀)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지표 제안서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함. 일부 개선-improvement, refinement-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모든 그룹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함
- (미국) **각국의 역량 차이를 고려한 지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정보시스템과 통계 니즈가 변한다는 측면에서, 탄력성(flexibility) 및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함. 지표는 글로벌 차원에서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각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차원의 own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baseline 및 initial data를 기반으로 방법론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technical하고 투명하며 inclusive한 방식을 촉구함
- (중국) 지표 framework의 개발은 험난한 과제로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음. 전반적으로 SDG의 목표를 다루고 있으며,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권위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모니터링과 운영상 제약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특히 개도국에는 모니터링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① **차별화된 공동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이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것을 제안함.** 그 이유는 국가마다 통계역량이 모두 다르고, 통계역량이 약하다 할지라도 지표 framework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
 - ② 지표 framework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함. 16번 목표에는 수많은 지표가 포함된 데 반해 이행수단과 관련된 17번 목표는 지표의 개수가 부족함.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key priority에 대한 초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③ 일부 지표에 대한 개선 혹은 수정 작업이 필요함. 그 이유는 i)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색 지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았음** ii) 많은 지표의 개념적 정의나 알고리즘이 확립되지 않았음. iii) 일부 지표의 경우 정량화가 쉽지 않아 완전한 측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따라 최종 보고서에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④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통계역량 및 데이터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개도국에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 이를 성취하려는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최종 보고서에 통계 역량 구축 지원을 통해 개도국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⑤ 모니터링의 경우 최대한 공식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 (쿠바) ① 공식통계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각국 통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어떤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것인지를 각국 NSO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기타 소스의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NSO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한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내기관과 국제기관 사이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표준화와 조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② 어떤 그룹도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것은 각국에게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음.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노력 및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의 노력을 한 데 모아 자원을 동원해야 할 것임 ③ 향후에도 IAEG-SDG의 활동이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바램

- **(독일)** 이번 지표 리스트를 채택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다음을 제안함
 - ① 시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표 리스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표가 모든 측면을 커버하지 못하며 지표의 개선을 위해 방법론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지표를 tier별로 나눈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며, 이러한 tier 구조를 통해 각 목표 범주 내에서 핵심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향후 편집(editing) 혹은 수정 작업을 통해 세부 목표의 모든 측면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함. 새롭고 보다 구체적인 work plan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 IAEG-SDG는 UN내 다른 전문가 그룹의 도움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함
 - ② **SDG는 정치적인 commitment를 필요로 하며, 이는 SDG 성공의 중요한 열쇠임.** 지표의 세분화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작업임. **일부 회색 지표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그 scope를 정의하는 데 최종 마감 기한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음. 또한 개발된 지표를 기반으로 각 국의 통계 역량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G-77+중국 대표: 태국)** 중국이 제안한 CBDR 원칙에 동의하며, 각국마다 상이한 현실과 개발의 정도를 고려해야 함. 글로벌 지표의 개발이 global review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global indicator framework의 고품질, 세분화, 시의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며, 다음을 강조하고자 함
 - ① 글로벌 지표의 개발은 기술적인 과정으로 각국 통계청이 주도하되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함. 방법론 및 데이터의 가용성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global indicator framework의 비교가능성 및 균형을 위해 적절한 scope의 정의가 필요함
 - ② 통계 역량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개도국, 소규모 도서국가, 특수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역량 구축이 필요함**
 - ③ 개발 파트너들이 져야 할 책임이 누락되었음. 최종 보고서에는 initial 및 provisional이라는 정치적 프로세스의 성격이 포함되어야 함
 - ④ **국가 차원의 ownership이 핵심**으로, 지표는 global review를 위한 것으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각국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세부목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군소도서국가)** 소규모 도서 국가들에게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음
 - ① 이번 지표는 최종안이 아니며, 피드백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이 공개적, inclusive해야 함
 - ② 지표의 개수가 MDG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음 ③ **국가의 ownership이 중요함**
 - ④ 측정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함 ⑤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통계청의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수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⑥ 표준화된 시스템 템플릿을 통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방글라데시)** LDC(최저개발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목표 및 세부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역량이 부족한 LCD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카타르) 국가적 차원에서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개선이 가능해야 함. 이에 따라 현실적인 안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함
- (네덜란드) 지표의 tier 체계, 데이터 격차 및 데이터 세분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국제적 조율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임. 국제 비교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각국 통계청의 역할을 타 기관에 비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일부 세부 목표에 대해 지표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것, 품질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역시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민해야 함
- (잠비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tracking이 이루어져야 함. Vienna Program of Action을 통해 보고 부담을 줄이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지표에 대한 tracking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특히 교역 촉진, 지역 통합, transit과 같은 주제에 대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고려되기를 바램. 또한 통계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도국 지원을 요청함
- (콜롬비아) 지표 리스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방법론, 데이터 세분화 및 통계청 역량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탄자니아) **회색 지표의 방법론 및 데이터에 대한 협의에 시간을 좀 더 두고 이루어져야 함.** HLG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통계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효율적인 방식과 새로운 재무 framework를 바탕으로 재원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 (몰디브) 이번 지표 보고서가 최종 해결책은 아니며, 향후 피드백 및 리뷰 과정이 뒤따라야 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에 있어 baseline 문제가 존재함.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 및 통계역량이 부족한 국가를 고려해야 할 것임. 이에 자원 동원 (resource mobilization)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며, transformative agenda를 바탕으로 현대화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각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며 표준화된 접근을 지양하고, relevanc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탈리아) 조율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flow가 가능하도록 각국 통계청이 협력해야 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가용 데이터 확보에는 비용이 발생함. 이에 통계 방법론 및 quality assurance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스웨덴) 아직 지표에 대한 테스트나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추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 각국의 ownership을 고려해야 하고, 데이터 소스 및 연구가 필요할 것임. 단, **CBDR의 원칙은 반대**하며, IAEG-SDG는 기술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남아야 함
- (영국) 지표 리스트를 지원하며, 3.8.2. universal health coverag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데이터 세분화를 위한 특별 전문가 그룹 구성을 제안함

- (일본) ① ToR 수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추가적으로 지표의 refinement 및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② 최종 단계에서 회색 지표에 대한 공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특히 2.B.1. 및 3.A.2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공식 통계는 이제 실행단계로 나아가야 함. 따라서 IAEG-SDG에 의한 지표 수정이 필요하며, 기술적 전문가의 지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④ CDDR에 대한 스웨덴의 의견을 지지함
- (뉴질랜드) 제안된 지표 리스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국가적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하며, 데이터 세분화에 대한 특별 그룹을 구성하자는 영국 의견에 찬성함
- (멕시코) 지표 리스트는 출발점임. 추가적인 미세 조정(fine-tuning)이 필요함
- (인도) 모니터링이 중요함.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핵심 원칙이 세워졌음. 3가지 tier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 작업과, Go Beyond GDP 목표, 세부목표의 relevance, SDG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주관적이고 오용의 여지가 있는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complete하고 robust한 지표가 나와야 함. 이 지표 리스트가 잠정적이라는 것을 위원회도 인정해야 함
- (인도네시아) 국가적인 맥락의 national ownership을 고려해야 하며, 대화를 통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함. 개도국의 역량강화가 이슈가 되며, SDG의 목표 및 세부목표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동일한 과제에 당면하고 있음. 지표 개발 및 실행에 있어 IAEG-SDG의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임
- (스위스) 단기간에 제한된 개수의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중요한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세분화가 필요함. 자원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국제 기구 차원의 조율과 방법론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
- (캐나다) CDDR 원칙의 포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데이터 자원과 각국 통계청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니터링 및 지표 관련 성과를 이루어야 함
- (라오스)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있어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최저개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 (노르웨이) 고품질의 데이터가 중요함.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맵이 필요함

나. 공식통계를 위한 변혁적 어젠다

- 통계위원회는 2030 어젠다의 데이터 수요 및 신규 사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글로벌, 지역, 국가 수준의 통계시스템 강화와 현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5개 지역 컨퍼런스의 완료와 변혁적 어젠다를 위한 지역 로드맵 작성을 촉구함

- 또한 통계시스템의 변화는 기술적인 이슈 이상임을 강조하면서 다음을 요청
 - 국가의 법적 제도를 통해 통계 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빅데이터 및 지리 정보의 활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위급 정치인이 노력
 - 변혁적 과정에서 자료 제공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시니어급 관리자의 훈련 확대
 - 글로벌 조정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신규 주제에 대한 지역 간 협력 확대
- 위원회는 변혁적 어젠다에 대한 5개 지역 컨퍼런스로부터 도출된 결과 및 권고안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나-1. 「공식통계를 위한 변혁적 어젠다」 관련 국가별 발언

- (브라질) 지역 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함. UN 지역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통계 현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를 바꾸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 (일본) 변혁적 어젠다를 추구함에 있어 분산형 및 중앙집권형 통계시스템을 갖춘 국가들 모두에게 과도한 통계 생산의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쿠바) 변혁적 어젠다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2030 어젠다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다만 새로운 소스의 데이터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증된 접근법이 필요함. 각국마다 기술 및 인프라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고안에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임. 특히 각국 통계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영국) 변혁적 어젠다는 통계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환영함. 시퀀싱 및 각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개별 보고 등 통계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이 필요함. 국가마다 뛰어난 전문 분야가 다르므로 선도 국가가 리드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아일랜드) 공동의 해결책(shared solution)이 중요하며, 통계 현대화에 대한 HLG 활동을 통해 협업이 가능했음. 각국 통계청을 비롯하여 50여개가 넘는 국가의 전문가 600여명이 GSBPM 등 여러 통계 현대화 분야에 input을 제공했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지(willing)를 가지고 있는냐의 문제로, 협업의 결과물은 모두 공유될 것임
- (수리남) 공식통계의 변혁적 어젠다를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것임. 여기서 초점은 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하며, 지역 차원의 컨퍼런스 개최를 전폭적으로 지지함

- **(유로스탯)** 시너지 창출 및 통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역적 전략과 기타 국제기구의 동참이 필요함. 고품질의 데이터 및 geo-referenced 같은 데이터의 혁신 전략이 필요함. 통계 현대화를 위한 변혁적 어젠다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며, 비전통적인 데이터 소스를 활용, 통합적이며 접근성이 개선된 현대화된 통계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중국)** 공식통계를 위한 변혁적 어젠다는 중요한 역할을 함. 빅데이터, 위성사진, geo-referenced 데이터 등을 서베이에 활용하는 등 중국은 통계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변혁적 어젠다를 위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
- **(몽골)** 변혁적 어젠다를 실행하는 데 IT는 중요한 역할을 함. 공통 표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 시행이 가능함. 변혁적 어젠다를 이미 실행한 국가로부터 배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개도국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시행할 수 없으므로 향후 통계 부문 변혁적 어젠다에 대한 IT 연수가 가능하기를 희망함
- **(요르단)** 공식통계의 변혁적 어젠다는 공식통계 개선을 위한 기본 초석임. 데이터 품질은 기관의 역량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주제를 그동안 왜 논의하지 않았는지 의문임. 요르단의 경우, 작년 전자 센서스를 시행하여 인적 자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센서스 결과도 2달 만에 공표하였음
- **(이란)** 변혁적 어젠다를 추구함에 있어 단일 로드맵이 아니라, 통계시스템 수준에 따라 로드맵을 정의하고 실행해야 함. 이란은 2014년 태블릿을 이용한 농업 센서스를 실시하여 정확도를 높였고, 2016년 가구 조사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응답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임.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티모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 각국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 **(호주)** 공식통계의 변혁은 기술적인 변화 그 이상을 의미함. 가치, 파트너십, 새로운 데이터, 현대적인 매니지먼트, 인프라 혁신 등의 부문에서 공식통계 조직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에콰도르)** 변혁적 어젠다의 공통적인 목적을 강조하고자 함. 정보 및 결과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공동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권고함. 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노력의 중복을 막을 수 있음
- **(사우디 아라비아)** 변혁적 어젠다 개발을 위한 방법론이 필요함. 각국 통계청 간의 harmonization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문제는 통계기관의 수가 많아 정부 및 민간에서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음. 따라서 변혁적 어젠다의 거버넌스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어젠다의 실행과도 연관되어 있음

다. 빅데이터

- 빅데이터 글로벌작업반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2015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2차 공식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국제 컨퍼런스의 결과를 지지함
- 또한 빅데이터 전략 및 프로젝트에 관한 2015 글로벌 서베이 결론과, 작업반의 업무 우선순위에 동의함
 - 빅데이터 등 proprietary data 접근 향상 및 법제화, 데이터 오너들과의 상호 이익적 파트너십 구축 등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완료
 - EU 통계훈련 프로그램 및 UNSIAP과의 협업으로 훈련과정 개발
 - SDG 지표 측정의 지원 목적을 포함하여, 빅데이터 사용 및 빅데이터 Sandbox에 관한 pilot project 수행
 - 공식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품질 프레임워크 개발
- 대표단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많은 도전과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개별국가마다 법적, 제도적 제약과 상황이 다르지만,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통한 '통계적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국제적 합의문도출'을 촉구함
 - 개도국의 빅데이터 IT 기술, 분석 방법 및 tool 등의 훈련과 관련하여, 한국 통계청의 빅데이터 전담부서 설립과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의 참여 및 노하우 제공 의사를 피력함
 - 또한 글로벌 작업반의 8개 TF팀별 업무수행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각 국가 통계청이 빅데이터 업무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자료원, 작성방법, 담당자 등의 정보 수록을 통한 유용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제안함
- 위원회는 업무 계획에 다음을 포함하도록 요청
 - (i) proprietary data의 web-scraping 리뷰
 - (ii) 그룹의 웹사이트 및 빅데이터 저장소(repository) 향상
 - (iii) 개발도상국의 빅데이터 지원
 - (iv) 글로벌 작업반의 업무를 2030 어젠다 HLG, 변혁적 어젠다, 공식통계 현대화 HLG와 연계

다-1. 빅데이터 관련 국가별 발언

- **(미국)** 데이터 접근성 개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주요 사항은 웹스크래핑을 할 때 허가나 동의가 필요한지와, 공식통계 생산의 빅데이터 방법 및 추정에 대한 것임
- **(러시아)** 빅데이터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식통계에서 데이터의 실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임. 러시아의 경우 관련된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데이터 소스는 민간부문에서 나오고 있음. 따라서 공식통계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또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존 시스템으로는 물리적 용량이나 속도 때문에 가능하지 않음. 공식통계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방법론이 권고되어야 함. 방법론 및 접근법에 대한 조율 및 포커스 그룹의 활동이 필요할 것임
- **(인도네시아)** 빅데이터는 공식통계의 품질 향상에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음. 공식통계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념,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빅데이터는 각국 통계기관의 공식통계를 대체할 수 없음
- **(스페인)** 빅데이터 활용의 모든 측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데이터 소유자와의 협력에 대한 법령, 규제, 정보보호 등이 필요함.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빅데이터가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방법론 및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네덜란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과 원칙이 필요함
- **(브라질)**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해석 및 개발 활동이 필요함.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 각국마다 다른 시각이 존재할 것임. 빅데이터는 미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빅데이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임. 공식통계 생산에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우려스러우며, 이는 복잡한 문제임
- **(중국)** 배우면서 활용한다는 원칙을 제안하며, 시범사업과 실험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중국 역시 기타 국가와 동일한 경험을 해 왔음. 빅데이터 교육에 대한 지원이 차후 컨퍼런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램. UN이 관련 지침 및 훈련 등을 제공하여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중국은 대외교역, 위성사진, 물가, 교통 등의 빅 데이터 적용에 관심을 갖고 있음. 변혁적 어젠다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비단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 패러다임 그리고 모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글로벌 작업반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대함
- **(일본)** 빅데이터가 공식통계에 유용한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을 보면 즉각적인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빅데이터는 지역/국가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빅데이터는 모집단의 대표성이나 데이터 품질에 많은 제약점이 있으므로, 빅데이터가 가진 리스크는 무엇인지와, 공식 통계에서 빅데이터의 위상이나 유용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덴마크) 빅데이터는 미래 공식통계 생산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 빅데이터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깨고, 빅 데이터를 가용한 여러 데이터 소스 중 하나라는 사실 파악에 도움을 준 글로벌 작업반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림. 미래에는 통계 현대화를 위한 데이터 융합(data integration) 방법이 유용할 것임
- (프랑스) 민간 데이터 소유자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함.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타당하고 유효한 프레임워크를 세워야 함. 행정자료를 비롯한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함
- (멕시코)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 빅 데이터의 적절성, 국가별 성숙도 및 격차에 대해 알게 됨. 빅 데이터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인프라 및 도구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과, 샌드박스 같은 도구에 대해 지식 및 경험을 교환할 필요가 있음. 민간 데이터 소스에 대한 법과 개인 정보의 비밀보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필리핀) 빅데이터 기술 및 전문지식에 대한 각 국 통계청의 훈련이 필요할 것임.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민간/공공 상호 도움이 되며, 샌드박스는 개도국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 문제는 개도국이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출되고, 이에 대한 advocacy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임

라. 국민계정

- 통계위원회는 국민계정 사무국간 작업반 및 자문그룹의 2016년 업무계획을 승인하고, 2008 SNA 이행과 관련한 연구 이슈 해결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일부 발생한 개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반에 동 이슈를 다루는 보고서 작성을 요청함
- 대표단장은 지속가능발전이 글로벌 통계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GDP를 넘어(Beyond GDP) 사회 및 환경 관련 논점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표 개발을 SNA 연구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 다만, 2008 SNA 이행이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국가도 많기 때문에 SNA의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강조함
 - SNA의 새로운 갱신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성계정 개발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제안함

- 국민계정의 SDMX 자료교환 체제는 각 국의 자료제공 부담 완화 및 국제 기구 간 자료공유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에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한국은 그간의 지속적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 SDMX 개발을 완료하고 금년 중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을 적극 홍보함
- 위원회는 국가들이 최소데이터 요건 준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기초 자료 생산을 각 국가에 촉구함

마. 환경경제계정(SEEA)

- 환경경제계정체계(SEEA) 이행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환영하고, SDG 지표를 위한 메타데이터 개발 지원을 요청함
- 우리측 대표단장은 분산형 통계체계 하에서는 SEEA 중심체계의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 여러 기관이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개최되는 교육, 회의에 통계작성 기관뿐만 아니라 기초자료 생산기관의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도록 제안함
- 또한 SEEA-Energy 계정은 대기배출, 자산 계정 등 다른 계정과 연관성이 많고, 특히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 기준으로의 채택을 강하게 지지함
- 위원회는 SEEA 이행전략 원칙에 합의하고, 글로벌,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조정 및 파트너십 관련 업무 완료를 촉구하였으며, 2030 어젠다를 위한 에너지계정, 농림어업계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SEEA-에너지, SEEA-농업을 완성하도록 전문위원회에 요청함

바. 국제비교프로그램(ICP)

- 실시 주기 단축을 지향하는 향후 ICP 라운드에 대한 권고안을 지지하고,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는 rolling benchmark 조사방법 적용 제안에 합의함
- 우리측 대표단장은 ICP 자료의 이용 가능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자료 접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필요시 사전적으로 참가국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함

- 예를 들면 ICP 참가국별 자료제공 항목이나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비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보공개 기준을 만드는 등 절차적 보완을 제안함
- 아울러 연구주제와 방법론적 측면에서, 통계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CP와 각 국가의 CPI를 통합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각 국가마다 물가조사 항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 전 충분한 검토 실시를 제안함
- 위원회는 거버넌스 기능의 효율성 및 국가 대표의 균형 제고를 위해 Governing Board, Inter-Agency Coordination, Technical Advisory Task Force로 구성된 ICP의 거버넌스 구조를 승인함
- ICP 2011 라운드의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로 의장자문단 그룹의 업무가 종료됨에 합의함

사. 국제통계분류

- 통계위원회는 모든 국제통계분류 업무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의 중앙 조정기구로서 전문가그룹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국제기구의 분류 개발은 국제통계분류 전문가그룹의 조정을 거쳐야 함을 확정함
- 또한 개정 COICOP, 제5차 개정 상품용도분류의 국제통계분류 활용을 승인함

아. 정보통신기술(ICT) 통계

- 통계위원회는 SDG 달성에 있어 빅데이터 등 주요 자료제공자로서 ICT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 도출을 위한 가이드선 개발을 권고함
- 대표단장은 특히 분산형 통계작성 체계하에서 ICT 자료의 지속적 생산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ICT 전략이나 정규사업에 통계작성을 포함하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하고, 빅데이터 등 새로운 자료소스의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TF 결성 등 성공적 협업사례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개도국의 ICT 통계작성과 관련한 아국의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소개하고, ICT 통계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함

- 위원회는 공식 ICT 통계의 상황과 2030 어젠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로의 통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18년 통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자. 기후변화통계

- 중국은 기후변화를 심각한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통계를 강화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 여러 국가의 성과 파악 및 개도국 역량구축 등 UN 통계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함
- 이탈리아는 국가 통계청의 기후변화 통계에 대한 투자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기후변화 통계 작성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기후변화 통계를 위한 framework 구축을 제안함
-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각각 환경경제 계정에 대한 성과를 통해 기후변화 통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음과 온실가스에 대한 SEEA-Energy 지표 작업의 필요성을 피력함

2. 공식통계 고위급포럼 (UN World Data Forum) 참가

□ 일 시: '16. 3. 7. (월) 15:00~18:00

□ 장 소: 뉴욕 유엔본부 Conference Building, room 4

(1) 2030 어젠다 이행의 데이터 수요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대화

(Policy dialogue on data needs and pri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 좌 장: José Rosero (에콰도르 통계청장)

- Speakers: 주유엔필리핀대표부, 주유엔멕시코대표부, UN 사무차장보, IPPF¹⁾

▶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에 어떠한 gap이 존재하는가?**

- (필리핀)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주요 성공 요소는 실행, 자원,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발 과정의 갭(gap)을 좁히기 위해서는 개입 조치를 취하고 재무 자원을 투자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1)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 데이터 세분화(disaggregative)에 의한 겹을 예로 들면, 말라리아가 발생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지역에 따라, 그리고 특정 취약계층(원주민, 장애인)에 따라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멕시코) 제도적 프레임워크(institutional framework)의 발전 정도 규명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 MDG 실행 과정에서도 데이터 취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 된 경우 성공할 수 있었음
- 환경 데이터의 겹이 중요할 것이며, 데이터의 성 및 지역별 세분화를 통해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cross-cutting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함
- 이를 통해 전체를 바라보는(overarching) 시각을 확보하고,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모니터링하며, 특히 민간 부문 geospatial 자료의 품질을 높여야 함
- (UN 사무차장보) 국제기구의 시각을 대변해 말씀드리고자 함. 2030 어젠다인 SDG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하며, 네 가지가 중요:
 - ① 데이터 니즈를 파악하는 것
 - ② 상이한 분야 및 주제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빈곤 및 질환 데이터 등 도전과제를 통합하여 SDG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야 함
 - ③ 소규모 도서 국가의 경우 환경 지표 대응이 어려운 점 등 지역별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
 - ④ 또한 국제사회가 이러한 취약 부분을 해결해야 함
- (IPPF) 시민사회의 시각을 대변해 말씀드리며, 다음의 gap이 존재함:
 - ① 데이터 소스의 gap으로, 자료 홍수 시대에 그 품질이 중요해지고 있음. 민간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데이터의 가치를 지키면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의 통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② 데이터 세분화(disaggregation)의 gap이 존재함. 데이터 수집 시 누락되는 대상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같은 취약 계층의 니즈 파악을 위한 disaggregation이 필요함

▶ 통계부문에서 추구해야 할 단기적이고도 확실한 성공(quick win)은 무엇이며, 어떠한 핵심 도전과제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가?
1천만 달러의 자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 (필리핀) IAEG가 설정한 지표에 대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SDG 목표 달성에 있어 정책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정부는 데이터 취합, 분석 및 보고 등 역량 구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을 규명해야 하며, 데이터의 시각화 등도 필요함
- (IPPF) 영향력이 높고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양성평등 지표로, 전체 인적 자본의 1/2을 차지하는 여성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지리적으로 민감한(geo-sensitive) 정보를 통해 분석하고, 여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멕시코) 정보의 연관성(relevance)이 중요한데, 2030 어젠다를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은 '이전까지의 접근법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
 - 이에 따라 투자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문은 통계역량 강화임
- (UN 사무차장보) 데이터의 기능은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정책입안가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지리공간정보를 기타 자료에 연동 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음
 -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각국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질 것이나, 일단 각 국 통계청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특히 저개발 국가의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강화된 노력을 통해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함

▶ UN World Data Forum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있다면 무엇인가?

- (UN 사무차장보) UN World Data Forum의 목적은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국제 기구 및 학계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시너지를 높여 2030 어젠다의 데이터 니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임
 - 2030 어젠다는 참여적인 접근법과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사례로, 2030의 데이터 관련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멕시코) 새로운 데이터 소스는 공식통계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 통합을 위한 도구, 기준 등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 과정에 학계도 참여해야 하고, 정부 내 그리고 UN 내부적으로도 제도적인 조율이 필요함. UN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 역량 구축을 통해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IPPF)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포함, 참여적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모델링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정치적인 결의를 기반으로 역량 및 자원을 구축해야 하며, 데이터 생산, 활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함
- (필리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commitment가 필요하며, 정부 및 국제기구들 간에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함
 - 모든 국가에서 SDG 달성에 필요한 역량구축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각 국 통계청은 데이터 disaggregation 및 시계열 데이터의 gap을 메우기 위한 기술 및 방법론을 개발해야 함

(2) 데이터 전문가와 데이터 생산자의 파트너십, 혁신적 접근 및 솔루션

(Partnership, innovative approaches and solution from data experts and data producers)

○ 좌 장: Gabriella Vukovich (헝가리 통계청장)

- Speakers: Ted Bailey(Dataminr*), Robert S. Chen(CIESIN²),
Kumar Navulur(Labs), Judith Randel(Development Initiatives*)

* 데이터 분석 업체

▶ SDG 추진 시, 혁신적인 데이터 접근법이나 해결책을 활용할 수 있는가?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에 있어 어떠한 gap이 존재하는가?

- (Dataminr)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로부터 actionable한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 특히 공공안전/안보 부문에서 사전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sweet spot이 존재함. 일례로 얼마 전 뉴욕의 폭발 사고 발생 시, 911 신고 속도보다

2)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콜럼비아대학 부설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

트위터로 소식이 퍼져나간 속도가 더 빨랐으며, 파리 테러사태도 미디어로 보도되기 전, 현장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먼저 배포됨

- 이전의 경보 시스템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정부 부문에서 이러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과제임
- **(CIESIN)** 학계는 데이터 및 정보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보유, 통합하고 품질을 높임
 - 데이터의 비약적 활용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를 **framework data**라 함
 - **framework data**가 공개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투명한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지표의 개선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high-resolution**의 행정자료 확보로 복잡한 **SDG**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본인이 몸담고 있는 센터에서도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학계가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자료의 **high-resolution**을 높임으로써 유용한 발전이 가능하며, 구글도 이러한 **tool**을 개발하고 있음
- **(Labs)** 본인이 일하고 있는 **Digital Globe**에서는 **high-resolution** 정보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타임머신과도 같은 도구를 활용하고 있음
 - **SDG**는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진척 상황을 측정하여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의 데이터 혁명은 **SDG**를 추구하는 데 있어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임.
 - 이를 위해 **NGO** 및 다국적 기업, 민간부문이 인류를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데이터라는 공통의 언어를 이용해 공공과 민간 부문 사이의 구분을 없애야 하며, 데이터의 민주화를 통해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 등 개개인이 참여하는 창조적인 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DI)** 품질이 보장된 전통적인 방법의 공식통계와 신기술 모두의 장점을 취합해 활용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으며, 여기에 기회가 존재함
 - 모니터링을 통해 **SDG** 달성을 측정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① 기술이 전 세계적인 범용성을 가지게 되면서, 지리정보가 target이 되고 있는데, 이같은 geo-referenced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② 빅데이터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며,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통해 cost of ownership을 줄일 수 있음
- ③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는 전통적인 데이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
- ④ 데이터 중심의 변화 관리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나타나면서 통계 분야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기존 통계에 통합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데이터의 품질, 메타데이터, 거버넌스 등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지 않을까?

- **(Dataminr)** 소셜 미디어 같은 새로운 데이터는 보물이 숨겨진 창고와도 같음. 이같은 human-generated 데이터는 공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machine-learning을 통해 데이터의 유용성이 발전할 수 있음
 - 데이터 통합 ➡ 아카이브 구축 ➡ 알고리즘 기반 모델 구축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트렌드를 통계적으로 알아낼 수 있으며, 이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측면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큼. 또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IESIN)**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① 지리공간정보의 중요성 ② 샘플링 프레임의 개선을 통한 지리공간정보 활용의 혁명 ③ 마이크로 데이터를 다른 유형의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자료의 가시성 제고
- **(Labs)** SDG를 위한 혁신 과정에서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가 유용하며, 이를 통해 자원 관리 개선과, 신기술의 정책 수단 활용이 가능함
 - 고해상도의 시각적 이미지와 클라우드 소싱을 결합하여 데이터의 signal을 개선
- **(DI)** 공식 통계와 비공식 소스의 데이터 세분화가 중요하며,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가시성을 높여야 함;
 - ① normalized, harmonized된 데이터 표준을 통해 지리정보의 활용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
 - ② 데이터의 세분화가 중요
 - ③ 데이터 셋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

▶ 글로벌 데이터 시스템의 확립과 지속가능개발 모델 제안

- (DI) ① SDG에 공통의 framework가 필요 ② 데이터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과 문화의 변화 필요 ③ 데이터의 시각화보다는 literacy 확보, security 및 openness가 중요함 ④ 현재 데이터에 집중되고 있는 정치적 관심을 잘 활용해야 함
- (CIESIN) 2030 어젠다는 국제 및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데이터(투자)는 자원 활용과 사고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사 결정에도 적용됨
 - ① 데이터의 투명성과 openness 확보 필요 ② 이해관계자 - 사용자, 여기서 민간 - 공공의 대립 문제가 대두하지만, 이를 분리할 필요는 없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
- (Datamir) 혁신에는 민간 부문의 신생기업 참여가 중요한데, 인센티브를 통해 가능할 것임. 또한 혁신적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며, 핵심 기업은 실리콘 밸리의 기업처럼 기술혁신을 위한 missionary 역할을 수행해야 함

3. 공식통계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회의(HLG-MOS) 참가

일 시: '16. 3. 7. (월) 09:00~13:00

장 소: 주유엔아일랜드대표부

주요 논의사항

○ 공식통계 현대화 관련 3건의 주요 활동에 관한 검토

- ①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관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공식통계를 위한 기계학습의 비용 및 이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것
- ② 방법론 설계의 공통모델(methodological architecture)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와 공통통계생산 아키텍처(Common Statistical Production Architecture)간의 연계를 분명히 할 것
- ③ 통계자료 에디팅에 관한 활동들의 비용효과성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 HLG 세미나 한국 개최 합의

- 우리청은 HLG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통계발전을 도모하고자 HLG 국제세미나*의 한국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전 HLG 회원국이 이에 동의함

* 회의명: High-level Seminar on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to Statistical Production

- 동 세미나는 2017년 서울 개최 계획으로, HLG 멤버, 통계현대화 위원회 전문가 등 50여명 참가 예정

○ 기타 논의사항

- UNECE 현대화위원회(Modernization Committee, MC)의 역할 재점검
- Sandbox 등 현대화 활동 관련 재원마련 방안 등 논의
- 차기 회의는 2016년 11월 24일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

4. 양자 협력회의

(1) 유로스탯 협력회의 (3.7(월), LE PARISIEN)

면담자: Mrs. Mariana Kotseva EU 통계처 부처장
Mr. Pieter Everaers 행정총괄국장
Mrs. Christina Pereira de Sa 대외협력과장

- 양측 대표단장은 한-Eurostat 통계협력 MOU 체결(10.6월) 이후 진행된 다양한 공동사업 수행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함
 - 한국통계청 직원의 연내 유로스탯 단기연수(3개월 이내) 파견에 합의하고, 구체적 주제 및 시점은 추후 협의하기로 함
 - 아울러 한국통계청이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선진기관 공조 개도국 대상 통계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공동 실시하기로 하고, 유로스탯 측에서 강사 파견을 약속함

(2) 라오스 통계청 협력회의 (3.8(화), Fabio Piccolo Fiore)

면담자 : Dr. Samaychanh BOUPHA 라오스 통계청장
Ms. Phonsaly SOUKSAVTH 차장
Ms. Phetsamone SONE 국장
Mr. Phousavanh CHANTHASOMATH 과장

- 우리측 대표단장은 내년도 계획된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국제개발협력(OD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상호 약속함
- 본 사업은 라오스 통계인적역량강화, 통계DB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등 라오스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우리측은 현지 사전조사, 초청업무협의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해왔음

(3) 볼리비아 통계청 협력회의 (3.9(수), 유엔 회의장)

면담자 : Mr. Luis Pereira Stambuk 볼리비아 통계청장의 2명

- 볼리비아 통계청장(Mr. Luis Pereira Stambuk)은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통합 및 작동 시스템에 기반한 공식통계 생산모델의 이행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한국 통계청에 요청함
- 이에 우리청은 '17년까지 개도국 대상 통계역량 ODA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18년도 이후에 실제적인 업무 착수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ODA 사업 신청절차 자료를 제공함(사업신청은 금년이나 내년도 가능)

(4) 아일랜드 통계청 협력회의 (3.9(수), 가온누리)

면담자 : Mr. Pdraig Dalton 아일랜드 통계청장
Mr Ciaran Dooly 국제협력과장의 4명

- 우리측 대표단장은 국제적인 통계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고위급 그룹(HLG) 의장국인 아일랜드 통계청장(Mr. Pdraig Dalton)과 향후 양 국간의 체계적인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주요 협력 분야는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 아일랜드 통계청이 개발한 Sandbox 습득을 위해 우리청 직원의 단기 파견 연수도 내용에 포함될 예정임

- 또한 아일랜드 통계청장은 '17년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HLG 국제세미나"의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함

(5) 한-아부다비 통계청 2차 업무협약(MOU) 체결(3.10(목), 유엔회의장)

- 양측 대표단장은 '12년도 제1차 업무협약에 이어, 금번에 제2차 통계협력 MOU를 체결하고, 빅데이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작성 등 통계 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양 기관의 통계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에 합의함
- 특히 우리측 대표단장은 아부다비 통계청의 금년도 "제15차 IAOS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면서 우리측 대표단 파견을 약속함

(6) 한-유엔인구기금(UNFPA) 업무협약(Agreement) 체결(3.10(목), UNFPA 본부)

- 대표단장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향후 5년간('16~'20) "세계 인구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 주요 내용은 (i) 2002년 마드리드 실행계획의 지역별, 회원국별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 (ii)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통계 모범사례 발굴 및 관련 DB 구축, (iii) 고령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 이를 통해 세계 인구고령화의 현주소를 제시하고, 각 국이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7)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 협력회의 (3.10(목), 유엔플라자호텔)

면담자 : Dr. Fahad S. Al-Tekhifi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장의 1명

-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장(Dr. Fahad S. Al-Tekhifi)은 IT 강국인 한국통계청의 기술 지원을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양 기관의 MOU 체결을 제안함
-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은 새로운 로드맵을 통한 통계 전환을 추진 중으로, 주요 내용은 (i) 통계이용자 지향적 통계생산 및 서비스와 (ii) 통계 품질관리임. 특히 전략 이행을 위한 IT 솔루션 기술에 관심이 많음
- 이에 한국 통계청은 양자간 MOU 체결은 통계청 뿐만 아니라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되므로 상세한 내용을 우선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IV 기타 참고자료

1.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주요 사진



【본회의에서 한국측 입장을 발언중인 통계청장님】



【한-아부다비 MOU 체결】



【한-UNFPA MOU 체결】



【아일랜드 통계청장 면담】



【유로스탯 양자회의】



【라오스 통계청장 면담】



【볼리비아 통계청장 면담】

2. 면담 인사 명함



Francesca Perucci
Chief
Statistical Services Branch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2 UN Plaza
Room DC2-1620
New York, NY 10017, USA

Tel.: 1-212-963-0212
Fax: 1-212-963-4569
email: perucci@un.org
http://unstats.un.org



Linda Hooper
Statistician
Statistical Planning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2 UN Plaza
Room DC2-1564
New York, NY 10017, USA

Tel.: 1-212-963-7771
Fax: 1-212-963-1940
email: hooper@un.org
http://mdgs.un.org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605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158

Laura Londén
Deputy Executive Director (Management)
and Assistant Secretary-General

E-mail: londen@unfpa.org
Telephone: +1 212-297-5115
Mobile: +1 646-932-3992

Skype: laura.londen

www.unfpa.org

Benoit Kalasa

Director
Technical Division
kalasa@unfpa.org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605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158
Telephone: +1 212 297 5211
Fax: +1 212 297 4915
Web site: www.unfpa.org

Klaus Simoni Pedersen
Chief
Resource Mobilization Branch
Division for Communications and
Strategic Partnerships
simonpedersen@unfpa.org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605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158
Telephone: +1 212 297 5038
Fax: +1 212 297 4918
Mobile: +1 917 815 0242
Web site: www.unfpa.org



Ann M. Pawliczko, Ph.D.

Technical Advis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Branch
Technical Division
pawliczko@unfpa.org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605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158
Telephone: +1 (212) 297-5283
Fax: +1 (212) 370-0201
Web site: www.unfpa.org



United Nations Building
Rajadamnern Nok Avenue
Bangkok 10200, Thailand
Tel: (+66 2) 288 1486
Fax: (+66 2) 288 1082
guerrero@un.org
www.unescap.org/stat

Margarita Guerrero
Director
Statistics Division



Janine T. Perfit

Modernization of the State Lead
Specialist
Institutional Capacity and Finance
Sector
Tel: (202) 623-3795
Fax (202) 312-4233
janinep@iadb.org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300 New York Avenue, N.W.
Washington, D.C., 20577, USA
www.iadb.org



José Rosero M.
Director Ejecutivo
Doctor (Ph.D.) en Economía

Juan Larrea N15-36 y José Rofrío
(593-2) 223-4774 / (593-2) 223-1602
jose_rosero@inec.gob.ec
www.ecuadorencifras.gob.ec

UNITED NATIONS



Mr. CHANG, Wook-Jin
Special Assistant to the Secretary-General &
Chief, Scheduling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Room S-3808
New York, NY 10017

Tel: 212-963-4449
E-mail: chang10@un.org



مركز الإحصاء
STATISTICS CENTRE

بطي أحمد محمد بن بطي القبيسي
المدير العام

Butti Ahmed Mohamad Bin Butti Al Cubaisi
Director General



T: +971 2 8100000 E: boalqubaisi@scad.ae
F: +971 2 8100800
صندوق بريد: 6036، أبوظبي،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P.O.Box: 6036,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www.scad.ae



مركز الإحصاء
STATISTICS CENTRE

أبو بكر عبدالله الجفري
مستشار - الشؤون الفنية

Abubaker Abdulla Al Gifri
Advisor - Technical Affairs



E: aalgifri@scad.ae
T: +971 2 8100131 F: +971 2 8100600 - M: +971 50 4431660
صندوق بريد: 6036، أبوظبي،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P.O.Box: 6036,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www.scad.ae



مركز الإحصاء
STATISTICS CENTRE

منى سعيد سيف السويدي

المدير التنفيذي لقطاع الإحصاء بالأمانة
Muna Saeed Saif Al Suwaidi
Acting Executive Director - Statistics Sector



M: +971 50 6114664 E: msalsuwaidi@scad.ae
T: +971 2 8100577 F: +971 2 8100800
صندوق بريد: 6036، أبوظبي،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P.O.Box: 6036,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www.scad.ae



عبدالله ناصر لوتاه
المدير العام

الهيئة الاتحادية للمنافسة والإحصاء

Abdulla Nasser Lootah

Director General
Federal Competitiveness & Statistics Authority



Statistics Canada
Statistique Canada

Cara Williams

Chief Advisor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R.H. Coats Building, 25th Floor, Section 1, Turway's Pasture
Ottawa, Ontario, K1A 0T6
613-963-6310 Fax: 613-951-2044
E-mail: cara.williams@statcan.gc.ca
Website: www.statcan.gc.ca

Canada



Teresa Dickinson

DCS & DCE Architecture, Design & Programme
Governance Group
Executive Management

Kaitiaki Ruaumaki o Te Kaitiaki Takekōwhiri
Riipua Hōwhiriwhiri o Te Kaitiaki Takekōwhiri
Te Kaitiaki Takekōwhiri

+64-4-931 4804 +64-21-941 143
teresa.dickinson@stats.govt.nz

Statistics House, The Boulevard, Harbour Quays,
PO Box 3922, Wellington 6140, New Zealand

www.stats.govt.nz
New Zealand Government

Hiroyuki IKEDA

Director for International Statistical Affairs
Office of Director-General for Policy Planning
on Statistical Standard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Government of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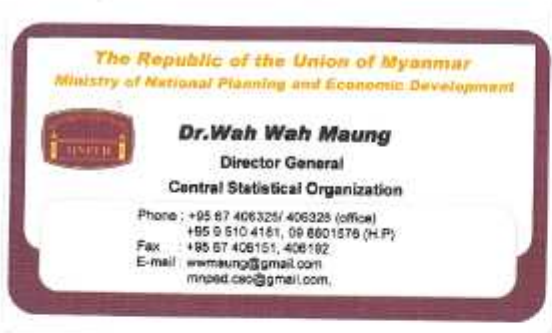
19-1 Wakamatsucho Shinjuku-ku Tokyo 162-8668 Japan
Tel: +81-3-5273-1145
Mail: internat@soumu.go.jp



Takao ITOU

Executive Statistician for International Statistical Affairs
ex-Director-General for Policy Planning (Statistical Standard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19-1, Wakamatsu-cho, Shinjuku-ku, Tokyo 162-8668 Japan
TEL: +81-3-5273-2080 FAX: +81-3-5273-1181
E-mail: itou2@soumu.go.jp



[별첨 1]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 결과 초안 (Decisions)

[별첨 2]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 국별 참가자 명단